#프롤로그

오늘 친구가 죽었다.

나무가 울창한 숲 속, 깊이 파여진 구덩이, 그리고 잘 짜여진 어두운 갈색의 관 하나만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저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거세게 내리는 탓에, 내가 흘리고 있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고, 정처없이 떠돌고 있었다. 짙은 회색의 투구와 칼만 차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할 지도 알지 못한 채 긴 세월 동안 정처없이 걷기만 했다.

투구에 이끼가 자라날 무렵, 시골 구석의 작은 호수에서 한 소년을 발견했다.

“어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려서인지, 나이를 먹지 않아서인지, 오랫 동안 홀로 걸어 왔기 때문인지, 호숫가의 울면서 비를 맞고 있는 붉은 머리가 슬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그래 너. 빨간 머리.”

“나?”

“여기 너밖에 없어.”

붉은 머리가 뒤를 돌아봤다. 나는 그날 본 얼굴보다 더 슬픈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녀석이 울어서, 빗줄기도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누구보다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고, 누구버다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다.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나는 홀린 듯이 가지고 있던 칼 한 자루와 무장을 넘겨줬다.

“가서 갚아 줘.”

소식이 들려왔다. 붉은 머리의 기사, 게클랭이 토너먼트에서 열 다섯 명을 비참하게 짓밟아버렸다고. 그리고 나를 찾고 있다고.

이 인연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

.

.

.

“그래서 그 때 내가 열 다섯 명을-”

“잘났다.”

“아무튼, 나 참전할거다.”

“미쳤냐?”

“당연하지.”

전쟁에 미친 놈이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참전했고, 여럿을 죽였다.

전쟁은, 게클랭을 잡아먹고 있었다.

단순히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였는지, 나라를 사랑해서였는지, 어떤 기억을 잊기 위해서였는지.

나로써는 알 방법이 없었다.

.

.

.

“넌 왜 십년 전 그대로인거야?”

하지만, 게클랭은 항상 웃었다.

“난 안 늙어. 이유는 몰라. 나도.”

“그럼 너 내 아들 해라.“

”뭐?“

”표면상으로만. 이미 사람들이 다 너 내 아들인줄 알아.“

나는 그대로였지만, 게클랭은 벌써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둘도 없는 친구였다.

.

.

.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

”난 안 죽어. 언제까지나 옆에 있을테니까 걱정 마,“

”벌써 머리가 다 희게 샜는데 뭘.“

게클랭은 웃고 있었다.

.

.

.

”게클랭이, 죽었어.“

”뭐?“

전쟁은, 결국 게클랭을 잡아먹었다.

게클랭은,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지만, 본인을 구하지 못한 전쟁의 희생자였다.

.

.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다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빈 자리는 예상한 것 보다 컸다. 그 상실감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다시는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 게클랭. 다시는.“

그렇게, 숲 속에서, 작은 소년은 모두가 떠나갈 때 까지 울고 있었다. 소년이 더 이상 울지 못하게 될 때 까지, 빗물도 천천히 소년을 토닥여주었다.

.

.

”어이 갤러.. 아니, 딘!“

소년은 더이상 울고 있지 않았지만, 단지 앉아 있었다. 울고 있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다.

”게클랭은 살해당한 걸 수도 있어.“

”뭐?“

소년, 딘의 슬픔과 상실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차기에 충분했다.

”자세히 설명해 봐.“

딘은 더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